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3년 9월 30일

발행인 : 이 민 규

인쇄일 : 2013년 9월 30일

주 소 :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사회과학대학 임상/건강 심리 연구실 (151동 423호)

전 화 : 055-762-2080 팩스 : 055-772-1219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paran.com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 집 위 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

Vol. 18, No. 3.

Septem. 2013.

---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paran.com)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jwa-dong,  
Jinju City,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

이 학술지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

#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이사 이 철 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 지 선 (건국대학교병원)

재무이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이 형 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감 사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서 은 수 (경상대학교병원)

[www.kci.go.kr](http://www.kci.go.kr)

---

#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 제 18 권 제 3 호

#### [개관논문]

인터넷 중독 개선을 위한 인지적 접근: 조절실패와 갈망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 김 세 진 · 김 교 현 / 421

#### [경험논문]

수용전념치료(ACT)가 문제 음주 대학생의 문제 음주 행동, 알코올 기대 및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조 연 정 · 손 정 략 / 445

체형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 김 지 원 · 이 장 한 / 465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인식과 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 박 준 휘 · 최 성 진 · 홍 창 희 / 479

대학생 대상 자기관리 수업이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 양 슬 기 · 정 경 미 / 499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 원 자 · 서 경 현 / 517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 이 인 혜 / 535

#### [Brief Report]

도박 문제 여부에 따른 암묵적 도박 태도의 차이  
..... 김 덕 용 · 이 장 한 / 557

흡연 청소년의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 서 경 현 · 서 정 열 / 567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얼굴 정서 인식의 손상 : 정상 노인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 최 성 진 / 579

## 흡연 청소년의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 정 열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본 연구는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흡연 유형과 흡연의존 경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흡연하는 고등학생들의 성별, 연령,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이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과 흡연 유형 및 니코틴 의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흡연하는 고등학생 201명(남성 113명, 여성 88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4세에서 18세 사이였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을 제외한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낮은 학업성적은 자극추구를 위한 흡연이나 충동적 흡연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충동적 흡연이나 습관성 흡연을 제외한 다른 흡연 유형들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래 이탈동조는 흡연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또래 이탈동조는 물론 충동성과 부모와의 갈등은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낮은 학업성적을 제외한 성별, 즉 남성, 연령, 충동성, 또래 이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 모두 니코틴 의존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니코틴 의존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은 모형에서 제외되었으며, 또래 이탈동조, 성별 및 연령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또래 이탈동조가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설명력이 약 21.9%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흡연, 흡연 유형, 니코틴 의존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최근 질병관리본부(2012)의 온라인 조사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 중에 18.1%, 여학생 중에 5.1%가 조사 전 한 달 동안 흡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성화계(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 중에는 무려 36.5%가 여학생 중에는 15.7%가 흡연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무기명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 흡연을 조사에는 사회적 요망도(social desirability)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서경현, 이선혜, 2006), 실제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신체의 조직과 장기가 흡연으로 생긴 타르에 있는 독성물질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어 건강상으로 더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실증연구들도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흡연관련 질병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USDHHS, 2012). 따라서 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흡연을 빠르게 중재하여 흡연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흡연 유형과 흡연에 대한 의존을 탐색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흡연 여부나 빈도 등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실험적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기간이 길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존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클 것이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에 대한 의존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거나 흡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다른 요인들과 함

께 하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박선희, 2009). 김지경과 김균희(2013)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이 더 크고 고학년일수록 흡연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업에 흥미가 없거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이 흡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은 흡연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많았다. 27개의 중단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Pierce, Choi, & Gilpin, 1996)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Pierce 등(1996)이 중단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가족 간의 친밀감이 적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흡연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Distefan, Gilpin, Choi, & Pierce, 1998).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할 가능성이 크다(Simons-Morton, Chen, Abroms, & Haynie, 2004). 흡연하는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연구(이상균, 2001)도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년의 흡연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과 흡연에 대한 의존을 부모와의 갈등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여러 중단 연구들에서 친구와의 의리를 중요시하고 또래에 대한 동조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흡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ierce et al., 1996).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상균(2001)의 연구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또래의 압력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도 또래 동조, 특히 또래 이탈동조가 청소년의 흡연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비행 혹은 이탈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유순화, 정규석, 2003),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이탈에 대한 동조 성향에 따라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에 차이가 있고 흡연에 더 의존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Barlow & Woods, 2009; Byrne & Mazanov, 2001)에서 검증된 적이 있다. 하지만 흡연 여부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이성립, 고은경, 최정희, 2012), 자존감이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존과 같은 흡연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요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을 증진시켜 금연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김영숙, 2012), 이런 검증이 임상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존과 관련된 성격 요인을 이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물질관련 장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온 성격 특성은 충동성이다(Lane, Cherek, Rhoades, Pietras, & Tcheremissine, 2003). 또한 충동성이 흡연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tchell, 1999) 그런데 흡연자의 충동성을 보상민감성과 행동억제 성향으로 측정하여 연구

된 경우가 많았다(Flory & Manuck, 2009).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김성민, 정구철, 2006)에서 보상민감성과 행동억제가 음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보상민감성은 음주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행동억제는 관계가 없었다. 흡연은 음주와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보상민감성이나 행동억제가 성격 차원으로 충동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격 차원의 충동성 자체를 측정하여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충동성이 흡연 제발, 즉 금연 실패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성인의 경우만 해당되고(Doran, Spring, McChargue, Pergadia, & Richmond, 2004), 청소년의 경우는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Krishnan-Sarin et al., 2007),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에 대한 의존과 관련하여 충동성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에 대한 의존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성별이나 연령 같은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학업 성취도, 또래 이탈동조,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동성을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흡연의존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첫째, 성별, 연령, 학업 성취도, 또래 이탈동조,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동성이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이나 니코틴 의존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성별, 연령, 학업 성취도, 또래 이탈동조,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동성으로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

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문제를 검증함으로써 흡연하는 청소년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하는 청소년이 더 이상 흡연하지 않게 하는데 유용한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방 법

###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4개의 고등학교(인문계 1, 실업계 3)에 재학하면서 흡연자로 적발된 201명(남학생 113명, 여학생 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18세( $M=16.84$ ,  $SD=1.07$ )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 중에 1학년은 72명(35.8%), 2학년은 63명(31.3%), 3학년이 66명(32.8%)이었다. 참여자 중에 53명(26.4%)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보고하였고, 개신교 64명(22.9%), 천주교 6명(3.0%), 기타 종교 2명(1.0%) 순이었으며, 94명(46.8%)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참여자들(51.7%, 104명)이 자신의 가계 경제수준이 '중류 중의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며, 38.3%(77명)의 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적이 보통 이하, 20.9%(42명)의 학생이 학업 성적이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흡연하는 청소년인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렸으며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으며, 참여자들이 설문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0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적률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이었다.

### 조사 도구

**흡연 유형.**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하는 이유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미국가정의 학회(AAFP, 2004)가 개발한 The Why Test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극추구, 손상난, 즐거움 추구, 스트레스 해소, 신체적 혹은 심리적 충동, 습관성 등 6가지 유형의 흡연 형태를 각각 3문항으로 측정하고, 3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가끔 그렇다, 5 = 자주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자극추구 .77, 손상난 .76, 즐거움 추구 .80, 스트레스 해소 .83, 충동성 .75, 습관성 .70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agerstrom(1991)의 니코틴 의존도 검사(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개발에서는 맥박, 체온, 니코틴의 일차대사물질인 코티닌 수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70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청소년의 충동성은 이현수(1997)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아이젠크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Scale)의 충동성 하위척도(Impulsive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충동성 하위검사는 아이젠크성격검사 3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위형 문항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는 버릇이 있고, 나중에 발뺌하고 싶은 일을 자주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무계획적이고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 버린다. 본 연구에서는 김유정과 서경현(2009)의 연구에서 문항 상관이 .25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10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2였다.

**또래 이탈동조.** 흡연하는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의 이탈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남(1994)이 개발한 또래동조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이 또래에게 동조하는 경향을 일탈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다. 이 척도는 5문항을 5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자주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6이었다.

**자존감.** 흡연하는 청소년의 자존감은 전병제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척도(Self-Esteem Scale)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항 상관이 높은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5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1이었다.

**부모와의 갈등.** 흡연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겪

는 갈등은 오영희(2004)가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 경험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특히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검자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문항의 예로는 “어머니(아버지)가 나를 무시하였다”, “어머니(아버지)가 나보다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아버지)가 나를 때리거나 공격하였다” 등이 있다. 이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한 16문항씩을 4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경순과 서경현(2011)의 연구에서 문항 간 상관이 높은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아버지와의 갈등은 .76, 어머니와의 갈등 경험은 .71이었다.

## 결 과

### 흡연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 심리적 요인과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이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과 흡연 유형 및 니코틴 의존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연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 $r=.08, n.s$ )을 제외한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자극추구를 위한 흡연( $r=.18, p<.05$ )이나 충동적 흡연( $r=.15, p<.05$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자존감은 충동적 흡연이나 습관성 흡연을 제외한 다른 흡연 유형들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 이탈동조는 물론 충동성과 부모와의 갈등 모두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래 이탈동조는 흡연 유



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모든 흡연 유형과 .42이 상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흡연하는 청소년의 성별은 니코틴 의존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남성일 경우 니코틴 의존 성향이 강했다,  $r=.27, p<.001$ . 연령도 니코틴 의존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7, p<.001$ . 충동성과 또래 일탈동조도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 일탈동조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21.2%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r=.46, p<.001$ . 흡연하는 청소년의 자존감도 예상과는 달리 니코틴 의존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r=.17, p<.05$ . 부모와의 갈등도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과 유의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갈등( $r=.26, p<.001$ )과 어머니의 갈등( $r=.22, p<.01$ ) 모두 니코틴 의존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유형과 흡연의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심리적 요인의 예측력

상관분석에 더해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성별, 연령,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증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학업성적, 충동성,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이 제거되고 또래 일탈동조와 성별 및 연령만이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상관분석에서 니코틴 의존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충동성, 자존감 및 부모와의 갈등의 경우 예언변인으로 포함된 세 요인과 공유하는 변량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에서 제거된 것이다.

표 1. 흡연 청소년의 연령,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및 부모 갈등과 흡연 유형 및 니코틴 의존 간의 상관행렬( $N=201$ )

변인	성별 (남성)	연령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또래 일탈동조	자존감	아버지와 갈등	어머니와 갈등	<i>M</i>	<i>SD</i>
<b>흡연 유형</b>										
자극추구	.13	.17*	.18*	.27***	.54***	.14*	.32***	.33***	8.81	3.75
손장난	.07	.22**	.06	.30***	.54***	.16*	.27***	.33***	6.63	3.61
즐거움 추구	.09	.18*	.09	.32***	.55***	.17*	.28***	.31***	7.92	3.76
스트레스 해소	.09	.08	.13	.34***	.42***	.21**	.31***	.30***	10.24	3.98
충동	.08	.16*	.15*	.31***	.44***	.12	.24***	.25***	7.92	3.81
습관	.02	.29***	.08	.34***	.53***	.10	.24***	.27***	6.24	3.39
<b>니코틴 의존</b>	.27***	.27***	.13	.21**	.46***	.17*	.26***	.22**	3.08	2.54
<i>M</i>		16.84	.59	4.71	12.00	11.42	12.02	12.02		
<i>SD</i>		1.07	.49	3.08	4.68	3.37	3.82	3.50		

\*  $p<.05$ , \*\*  $p<.01$ , \*\*\*  $p<.001$ .

주.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총 201명이지만, 아버지와와의 갈등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99명이었고, 어머니와의 갈등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98명이었다.

표 1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관분석에서 자존감은 부모와의 갈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충동성과 부모와의 갈등은 또래 일탈동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또래 일탈동조와 이 세 요인이 공유하는 변량이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또래 일탈동조가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설명력이 약 21.9%이었다,  $\beta=.47, p<.001$ .

또한 남성일수록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일탈동조에 더해 니코틴 의존을 4.9%를 설명하고 있었다,  $\beta=.22, p<.001$ . 연령도 또래 일탈동조와 성별에 더해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을 2.3%를 설명하고 있었다,  $\beta=.16, p<.05$ . 또래 일탈동조, 성별 및 연령, 세 가지 요인으로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의 변량을 29.1%가량 설명할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고등학생의 흡연 유형과 흡연에 대한 의존을 성별, 연령, 학업 성취도, 또래 일탈동조,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 및 충동성과 같은 요인과 함께 탐색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는 흡연 유형에 차이가 없었다. 이

는 남녀 청소년 간에 흡연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흡연율이 높거나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김지경, 김균희, 2013)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모두 흡연을 어느 정도 하여 온 청소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남자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여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Fagerstrom의 니코틴 의존도 검사가 여자 청소년의 흡연하는 상황이나 흡연 행태에 맞는 않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오랫동안 흡연을 참다가 한꺼번에 흡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서경현, 2007), 아침에 일어나 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나 오랜 기간 동안 흡연하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묻는 검사 문항으로 여성의 흡연에 대한 의존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흡연 여부나 흡연 행태를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한국의 여자 청소년에게서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서경현, 이선희, 2006), 니코틴 의존도에서의 이런 성차는 추후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설계된 연구를 통해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같은

표 2.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201)

예언변인	B	$\beta$	t	$\Delta R^2$	F
또래 일탈동조	.25	.47	7.73***	.219	54.22***
성별(남성)	1.13	.22	3.59***	.049	35.20***
연령	.37	.16	2.47*	.023	26.12***

\*  $p<.05$ , \*\*  $p<.01$ , \*\*\*  $p<.001$ .

주. 제외된 예언변인: 낮은 학업성적, 충동성, 자존감, 아버지와의 갈등, 어머니와의 갈등

흡연이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Hall, 1994), 니코틴 의존도가 남성이 높더라도 여자 청소년의 흡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흡연 유형 모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여러 흡연 유형 혹은 흡연하는 이유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의 편차가 크지 않은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흡연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연령이 니코틴 의존도와 정적 상관관을 보인 것은 그런 해석을 더 직접적으로 지지한다.

낮은 학업 성취도는 자극추구를 위한 흡연이나 충동적 흡연과 관계가 있었고, 니코틴 의존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런 결과는 학업 성취도가 흡연의 유지와 상관이 없고 실험적 흡연 혹은 흡연 시작과는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종단 연구에서도 흡연 시작과 학업 성취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erce et al., 1996). 낮은 학업 성취도가 충동적으로 혹은 자극추구를 위해 흡연하는 것, 즉 실험적 흡연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학업 성취도가 흡연에 의존하게 하여 그것을 계속 하게 하지는 않는 듯하다.

부모와의 갈등은 흡연하는 청소년의 모든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원래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비행과 관계가 있다(Smith & Stern, 1997).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흡연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다양한 이

유에서 더 흡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결과를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이상균, 2001; Distefan et al., 1998; Simons-Morton et al., 2004)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부모와의 갈등이 흡연의 시작이 아닌 흡연에 더 몰입하거나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의 갈등 모두 흡연하는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 부모와의 갈등과 흡연에 대한 의존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흡연하는 청소년의 몇 가지 흡연 유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경향이 더 있었던 선행연구들(Barlow & Woods, 2009; Byrne & Mazanov, 2001)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흡연하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상균, 2001; 이성림 외, 2012)에서 자존감이 흡연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태학적 혹은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도 추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흡연 이유가 확실하고 니코틴 의존이 심한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탈 성향이 강한 청소년이 사회의 시선에 대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자부심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일 수 있다. 일탈 동조성향과 함께 투입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자존감이 유의한 예언변인이 아니었던 것도 이런 논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아무튼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흡연을 중재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충동성이 흡연하는 청소년의 모든 흡연 유형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니코틴 의존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충동성이 물질남용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Lane et al., 2003), 흡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적이 있지만(Mitchell, 1999),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흡연 시작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닌 흡연에 의존하게 하거나 흡연을 유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충동성의 지표로 보상민감성이나 행동억제 성향으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차원에서의 충동성이 흡연의존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그 의미가 다르다. 충동성이 일탈 행위와 상관이 있어 또래 일탈동조와 함께 투입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격적 차원에서 충동성 그 자체와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의존 간의 관계는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 일탈동조는 모든 흡연 유형은 물론 니코틴 의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를 또래의 일탈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이 흡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흡연을 일탈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유순화, 정규석, 2003)을 지지한다.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독립적으로 상관분석에서 니코틴 의존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모두 흡수하여 니코틴 의존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 설명력이 21.0%였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해서는 일탈 성향이나 또래 일탈에 동조하는 경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탐색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흡연에 관해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서경현, 이선휘, 2006).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흡연 여부를 묻는 설문을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 동안 흡연을 하여 학교에서 적발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는 다른 장소에서 설문하였기 때문에 설문 결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요망도 문제가 다소 감소하였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충동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성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니코틴이 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Counotte et al., 2011),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는 흡연 개시시점 등과 같은 흡연관련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연구가 추후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흡연행동에 중독되는데 다른 요인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크다는 임상적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참 고 문 헌

- 김영숙 (2012).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2(2), 121-130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

- 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지경, 김관희 (2013). 중·고등학생의 흡연여부 및 빈도의 결정 요인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33, 88-118.
- 박선희 (2009). 학령기 및 청소년 초기 흡연행태와 흡연 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9(3), 376-385.
- 서경현 (2007). 한국 여성의 흡연과 금연에 관한 최신지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695-713.
- 서경현, 김성민, 정구철 (2006).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성별, 음주가족력과 대학생의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3), 607-626.
- 서경현, 이선희 (2006).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아개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2), 29-45.
- 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521-535.
-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 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95-214.
- 이경순, 서경현 (2011).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원한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595-608.
- 이상균 (2001).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 사회복지리뷰, 6, 77-94.
- 이성림, 고은경, 최정희 (2012).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치위생교육학회지, 12(1), 123-133.
- 이현수 (1997). 아이젠크 성격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질병관리본부 (2012).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국립보건연구원.
-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2004). *The Why Test*.
- Barlow, A., & Woods, S. E. (2009).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smoking experimentation in childhood.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79*, 529-537.
- Byrne, D. G., & Mazanov, J. (2001). Self-esteem, stress and cigarette smoking in adolescents. *Stress & Health, 17*, 105-110.
- Counotte, D. S., Goriounova, N. A., Li, K. W., Loos, M., van der Schors, R. C., Schetters, D., Schoffelmeer, A. N., Smit, A. B., Mansvelder, H. D., Pattij, T., & Spijker, S. (2011). Lasting synaptic changes underlie attention deficits caused by nicotine exposure during adolescence. *Nature Neuroscience, 14*(4), 417-419.
- Distefan, J. M., Gilpin, E. A., Choi, W. S., & Pierce, J. P. (1998). Parental Influences Predict Adolescent Smoking in the United States, 1989-1993.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 466 - 474.
- Doran, N., Spring, B., McChargue, D., Pergadia, M., & Richmond, M. (2004). Impulsivity and smoking relapse. *Nicotine & Tobacco Research, 6*(4), 641-647.
- Fagerstrom K. O. (1991), Towards better diagnoses and more individual treatment of tobacco dependence. *British Journal of Medicine, 122*(2), 159-182.
- Flory, J. D., & Manuck, S. B. (2009). Impulsiveness and cigarette smoking. *Psychosomatic Medicine, 71*(4), 431-437.
- Hall, S. M. (1994). Women and drugs. In V. J. Adesso, D. M. Reddy, R. Fleming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women's health* (pp. 101-126).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Krishnan-Sarin, S., Reynolds, B., Duhig, A. M., Smith, A., Liss, T., McFetridge, A., Cavallo, D. A., Carroll, K. M., Potenza, M. N. (2007). Behavioral impulsivity predicts treatment

- outcome in a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adolescent smokers. *Drug & Alcohol Dependence*, 88(1), 79-82.
- Lane, S. D., Cherek, D. R., Rhoades, H. M., Pietras, C. J., Tcheremissine, O. V. (2003). Relationships among laboratory and psychometric measures of impulsivity: Implications in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Addictive Disorders & Their Treatment*, 22), 33-40
- Mitchell, S. H. (1999). Measures of impulsivity in cigarette smokers and non-smokers. *Psychopharmacology*, 144(4), 455-464.
- Pierce, J. P., Choi, W. S., & Gilpin, E. A. (1996). Validation of susceptibility as a predictor of which adolescents take up smoking in the United States. *Health Psychology*, 15, 355-36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mons-Morton, B. G., Chen, R., Abrams, R., & Haynie, D. L. (2004). Latent growth curve analyses of peer and parent influences on smoking stage pro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ts. *Health Psychology*, 23(6), 612-621.
- Smith, C. A., & Stern, S. B.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71(3), 382-421.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원고접수일: 2013년 7월 3일

논문심사일: 2013년 7월 12일

게재결정일: 2013년 7월 19일

#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moking Styles and Tobacco Dependence Proneness among Adolescent Smoker

Kyung-Hyun Suh      Jung-Yeal Seo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with smoking styles and proneness of tobacco dependence among adolescent cigarette smoke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researchers analyzed the relations of gender, age, low academic achievement, impulsiveness, peer deviant conformity, self-esteem, and conflicts with parents to smoking styles and nicotine depend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smoking cigarettes. The participants were 201 high school students (118 males and 88 females), whose ages ranged from 14 to 18. Correl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smoking styles except smoking for stress release, while low academic achieve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oking for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e smoking. Moreover,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smoking styles except impulsive smoking and habitual smoking. Peer deviant conformity was closely correlated with smoking styles. Impulsiveness and conflicts with parents, as well as peer deviant conform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smoking styles. Gender, impulsiveness, peer deviant conformity, self-esteem, and conflicts with parents, except low academic achieve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nicotine dependenc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for nicotine dependence revealed that peer deviant conformity, gender, and ag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low academic achievement, impulsiveness, self-esteem, and conflicts with parents were eliminated from this model. Peer deviant conformity was a determinant factor for nicotine dependence of adolescents; its accountability was around 21.9%.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discussion and information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adolescents, smoking, smoking styles, nicotine dependence